

2

외계어인가, 신조어인가



◆ 적절한 근거를 들어 생각을 표현해 봅시다.



그림을 보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동우야, 생파랑 문상이 뭐야?”

“너는 몰라도 돼!”

용수와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키득거리며 교실로 돌아갔다. 텅 빈 복도에는 나 혼자 남았다.

일주일째 되던 날, 문방구에서 곰돌이 모양의 연필깎이를 만지작거리던 여자아이가 말했다.

“지은이 생일 파티 때 선물할 건데, 어때?”

“예쁘네. 그런데 촌스럽게 생일 파티가 뭐니? 생파라고 해야지.”

“그러게. 참, 나는 생파 때 문화 상품권 주는 애는 싫더라.”

“맞아. 나도 문상은 별로야.”

‘생파는 생일 파티, 문상은 문화 상품권을 줄인 말이었어?’

그동안 모르던 말의 뜻을 알게 되자, 마치 암호를 푼 것처럼 신이 났다.

가방 안에 지갑이랑 생일 초대장이랑 다 들어있는데, 그만 버스에 놓고 내렸다. 지나가던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할아버지, 친구 ‘생파’에 가다가 ‘깜놀’해서 내렸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고…….”

“어이구, 대체 뭘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어른 놀리면 못써!”

“아줌마, 친구 ‘생파’에 가다가…….”

“애, 너는 어떻게 다 큰 애가 우리말도 잘 못하니? 나 바빠. 장난치지 마.”

장바구니를 들고 가던 아줌마도 화를 내며 그냥 가 버렸다.

“?☆>;ㄹ,#%♫……!” (도와주세요. 길을 잃었어요!)



“쫓쫓, 집이 없나. 왜 저러고 있을까? 이상한 애네.”

지나가던 아줌마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똑바로 말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더 이상한 줄임말들이 튀어나왔다.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나는 외계인이 아니야!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2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6명은 자녀가 쓰는 신조어·줄임말 때문에 자녀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체험 테마파크에 따르면 초등생 학부모 111명에게 ‘자녀의 신조어·줄임말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은 결과 ‘소통의 단절(끊김)과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답한 학부모가 63%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우리말이 훼손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답한 학부모가 21%였다.

같은 기간 9~13세 어린이 3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생이 하루에 사용하는 신조어·줄임말의 수는 평균 2.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 쓰는 신조어·줄임말에는 ‘핵노잼(엄청나게 재미없다)’이 23%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생선(생일 선물)’이 22%, ‘노답(답이 없다)’이 18% 순이었다.



No답!



3

언어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

TV나 인터넷에는 지금의 사회와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신조어(새로 생긴 말)가 쏟아져 나온다.

우리말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정기적으로 새로 나타난 낱말을 살피는 국립국어원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39개 온·오프라인 대중 매체에 등장한 새로운 낱말 334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국어원은 매년 신조어를 조사해 사람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사용하는지, 공식적으로 인정할 만큼 교양 있는 단어인지 등을 판단한 뒤 이 중 일부는 사전에 올리거나 표준어로 인정하기도 한다.

이번에 발표된 신조어에는 특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어휘가 많았다. ‘모루밍족(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살 때는 모바일을 통해 싸게 구입하는 사람)’, ‘앵그리 맘(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사회 문제에 분노해 적극적으로 그 해결에 참여하는 여성)’이 대표적이다.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통신과 관련한 신조어도 있었다. ‘먹스타그램(자신이 먹은 음식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 ‘인생짤(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잘 나온 사진)’, ‘광삭(빛의 속도처럼 빠르게 삭제함)’ 등이 여기에 속한다.

1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 1 「줄임말 대소동」에서 복도에 혼자 남은 ‘나’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 2 「줄임말 대소동」에서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3 글에 등장하는 신조어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2 신조어를 사용하는 사회 모습을 떠올리며 물음에 답해 봅시다.

- 1 글 2를 살펴보고 글의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을 지어 보세요.

- 2 ‘언어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찾아 써 보세요.

3 다음의 뜻을 가진 낱말을 글에서 찾아 써 봅시다.

- 어떤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보여 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모범이나 교훈이 될 만한 것
- 빛의 반사를 이용해 물체의 모양을 비추어 보는 물건

4 신조어 사용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절한 근거를 들어 써 봅시다.



5 1445년에 편찬된 「용비어천가」의 한 구절을 현대어로 다시 써 보고 시대별 신조어를 살펴봅시다.



오늘날에 오면서 달라진 단어

- | | | |
|-----------|---------|---------|
| 불휘 → 뿌리 | 남근 → 나무 | 부름 → 바람 |
| 위다 → 흔들리다 | 곶 → 꽃 | 도타 → 좋다 |
| 여름 → 열매 | 하다 → 많다 | 믈 → 물 |
| 꺾물 → 가뭄 | 부를 → 바다 | |

원문

불휘 기픈 남근 부름매 아니 뭇씨 곶 도코 여름 하느니
 시미 기픈 므른 꺾믈래 아니 그출씨 내히 이러 부름래 가느니

시대별 신조어

2002년	초딩, 얼짱, 몸짱	2005년	안습, 흠좀무, 열폭, 지못미
2006년	엄친아, 된장녀, 훈남, 듣보잡	2007년	킹왕짱, 넘사벽
2010년	레알, 차도남	2014년	훈밥, 씬
2015년	금수저	2018년	소확행, 갑분싸, 케바케, 이생망



배움 다지기

● 적절한 근거를 들어 생각을 표현했나요?

